

장관. 강금실에. 관한.

두 권의. 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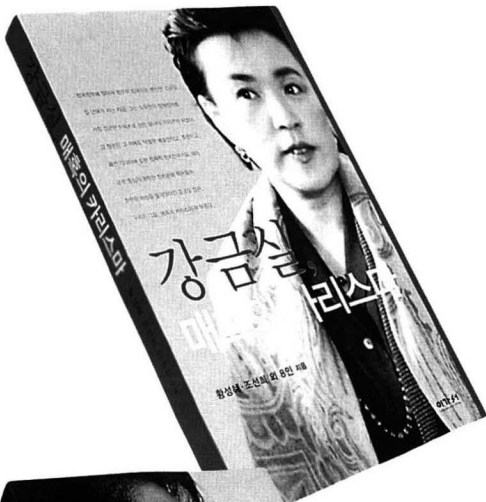
시인. 황인숙의. '감염' 론.

'부드러운 칼', '매혹의 카리스마', '아름다운 휴머니스트'는 모두 법무부장관 강금실에 붙여진 수식어이자 별칭이다. 그런데 '아름다운 휴머니스트'를 빼고 보면 '부드러운 칼'과 '매혹의 카리스마'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교직할 반어법의 수식을 택하고 있다. 세상 모든 칼은 무엇인가를 베는 데 소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 없고, 카리스마 역시 냉혹의 의미를 함의하기 때문에 매혹과 짝짓기에는 쉽지 않다. '아름다운 휴머니스트'와 동격으로 놓기에는 저어한 표현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두 수식어는 인간 강금실과 법무부장관 강금실을 수식하는 데는 충격요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출판편집자들의 고뇌를 상징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금실을 표현하는 데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제목을 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왜? 강금실이기 때문이다.

두 책은 표지에 강금실 장관의 캐릭터가 상징하는 사진을 큼지막하게 내세웠다. 여기서 장관의 미모까지도 책 판매에 연결시키려는 지식생산자의 '불온한 혐의(?)'가 보이기도 하지만 굳이 흥잡을 일으키는 아니다. 정가가 매겨진 모든 책은 그 어떤 형이상학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자고 만드는 것이다. 아무튼, '옆모습을 찍은 《부드러운 칼의 노래》 사진을 보자. 그녀의 코는 오뎅하고, 입술은 고집스런 성격의 전형이고, 치열은 가지런하다. 거기에 단정하게 귀 뒤로 쓸어 넘긴 머리칼과 단순하면서도 귀족스런 귀고리가 눈길을 끈다. 두 사진은 아주 복잡적이다. 아름다워 보이는가 하면 날카로워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가 하면 고집스러워 보이는 것이다. 과연, 강금실을 닮았다는 느낌과 함께 강금실의 진짜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약간 헷갈리게 만든다는 말이다. 너무 명료하면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 책의 표지는 강금실에 대한 묘한 매력과 궁금증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강금실, 매혹의 카리스마》는 단판이다. 우선 이 책의 표지에 실린 강금실은 초점이 약간 덜 맞은 듯한 느낌을 주면서 옆으로 살짝 치켜 뜬 눈매와 우리의 5천년 역사 내내 미인이 갖춰야 할 요소의 하나로 꼽혀온 '앵두 같은 입술'을 보여준다. 여기에 보일 듯 말 듯한 치열, 단아한 이마 위로 몇 가닥 흘러내린 머리칼의 모습이 '카리스마'를 위해 가세한다. 역시 매혹적이며 그런 한편 간간함이 절로 묻어나온다. 흑백 처리된 사진 속의 의상 역시 코디네이터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만큼 드레시하다. 공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뚱뚱한 몸매인지 가냘픈 몸매인지 짐작할 수 없게 만드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 블라우스 위에 하나, 목에 하나 걸린 목걸이 역시 수수하면서 '겉'이 주는 신비감을 낳는 데 성공했다.

우리에게 있어 법무부장관 강금실은 어떤 관료보다 명쾌하고 단아하며 소신이 뚜렷한 '관료의 짱'이지만 책의 표지에 드러난 이미지는 이렇게 다의적이고 중의적이다. 기자는 두 권의 책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나는 어느덧 강금실이 자의든 타의든 문화계의 콘텐츠 대상으로 걸어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녀는 가장 빠른 시간에 한 인물에 대한 신드롬적인 열기를 모으는



《강금실, 매혹의 카리스마》
황성혜 외 지음 | 이가서 | 292쪽 | 값 9,800원

《부드러운 칼의 노래》
김정일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20쪽 | 값 9,000원

데 성공했고, 그런 신드롬에 본능적으로 이어지기 마련인 대항마(사생활 업무능력 과거행적)의 출현조차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닳고 싶은 사람이 희귀한 이 시대에 닳고 싶은 사람의 표본으로 좌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다는 아니다. 그녀는 시인 소설가들에 못지 않은 문화적 어휘를 동원하면서도 때로 경쾌하면서도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생생 언어'를 통해 선비적인 모습과 친구 같은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획득하는 데도 성공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자신의 콘텐츠 가치를 높인 것이다. 이 역시 세대를 뛰어넘어 관심을 끌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 실례들을 보자. 그녀는 김수영 시인을 '대단한 시인'이라고 말하고 3,40대가 세파에 가장 시달리는 나이라고 규정하는 등 '압축과 정의'에 익숙하다. 또한 공동체, 시스템, 룰, 역학관계, 예술로서의 정치 같은 적확하면서도 뛰어난 어휘 동원력과 비유 능력을 자랑한다. 그의 유별한 비유 중에는 "설렁탕 집에서 '특'을 주로 팔면 보통 설렁탕은 없어져 버린다. '특'이 일반화되고 또 다른 '특'이 나오게 된다." "사람한테 자유라는 건 마음의 구애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등등의 탁월한 현실 감각과 해학, 사유가 빛나는 대목도 있다. 그 반대에 '목숨 걸고' '킵킵거리다가 녹음당하고, 줌 든해요' '노는 게 꿈이다. 진짜로' '연애를 마다할 일 없다' 같은 언술은 그가 이웃집 여자처럼 부담없는 사람이라는 친근감으로 작용한다. 그런 한편에 장편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저자 장정일이 음란문서제조죄라는 특이한 '죄(?)'를 짓고 구속됐을 때 담당 변호사로서 쓴 변론기는 문학적 향취가 가장 뛰어난 변론기로 꼽힐 정도다. 그 변론기의 일부는 이렇다.

'나는 모든 사물과 사람을 그의 이름으로 부르고 — 우리 사회 호칭의 복잡한 권위적 구조, 성기를 공개적으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는 은폐성을 생각해보라 — 가능한 한 육체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놓여 원하고 충족하고 사랑하며 서로가 타인의 육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 아마도 이것은 나만의 꿈이 아니며 삶에 지친 몸을 달래는 모든 사람이 밤마다 혼자 잠들면서 꿈꾸는 사회일 것이다. 앞선 사람인 작가로서 그와 같은 꿈에 도전한 장정일을 위하여, 이 사회의 모든 장정일을 위하여 나는 변론하고 싶다.'

두 권의 책이 갖는 또 한 가지 의미는 경제전문 서적을 간행하는 데 주력해 온 한국경제신문과 최근 각양각색의 콘텐츠를 전방위적으로 출간해 내는 이가서가 법무부장관 강금실을 도서목록에 편입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뉴스인 동시에 불황에 힘싸인 출판계가 어떤 촉수를 가져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단서의 하나이다. 이렇게 저렇게 가공하지 않아도 이미 출판 콘텐츠화된 한 인간, 더구나 말을 바꾸지 않고 솔직담백하게 자기 노선을 걷는 현직 법무부장관인 점이 여러 출판사에 출판 욕심을 내게 했을 것이다. 이것은 작금의 현실에 문화 콘텐츠화할 수 있는 인물이 극소수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만큼 기대를 저버리는 인간이 많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두 출판사는 아마도 그가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

든 안 물러나든 인물탐구의 한 대상으로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 같다. 아무튼, 비켜 서서 보자면, 그런 측면 때문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강금실' 인사에 관한 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든 부정적인 측면에서든 두 권의 책을 낳게 한 고위 공직자는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일화 한 가지는 강금실 장관이 장관으로 입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친구인 황인숙 시인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점이다. 황인숙 시인은 '입각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입각을 권한 시인의 말은 이랬다.

"네 순수함이 사람들을 감염시킬 거야. 망설일 것 없이 정부에 들어가. 그리고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해 봐. 네 순수함이 얼마나 퍼져나갈 수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스며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게임." 이 말은 시인 황인숙의 에세이집 《인숙만필(仁淑漫筆)》에 소설가 고종석이 발문 형식으로 쓴 글에 나와 있는데 이쯤 되면 두 권의 책을 낳게끔 한 인간 강금실은 시인 황인숙의 '감염론'에 훌륭히 복무한 셈이 되고 '네 순수함이 사람들을 감염시킬 것'이라는 황인숙 시인의 예단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얘기가 된다. 기자는 《부드러운 칼의 노래》와 《강금실, 매혹의 카리스마》를 보면서 《인숙만필》을 다시 펼쳐 보았는데 세 권의 책 모두에서 냉이 냄새가 나는 듯했다. 모름지기, 인물의 선도鮮度 때문일 것이다. **한문** 임동현 기자



《인숙만필》 황인숙 지음 | 마음산책 | 236쪽 | 값 8,500원